

# 덤핑책과 저작권

李璟薰

普成社 대표 · 본지 편집위원

필자가 出協에 재직할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서울대 국문과 교수인 全光鏞씨가 어느 날 오후 사무실로 일부러 찾아왔다. 경향신문사가 소공동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니 적어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침 당시 회장 鄭鎮肅씨도 자리에 함께 하였다. 그는 우리와는 친숙한 관계다. 전교수의 大人風도 다 아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는 그날만은 그런 모습은 없고, 처음부터 화가 잔뜩 나서 우리와 대좌했다. 이어 큰 소리로 “도대체 내가 쓴 책이 경향신문 정문 앞 길바닥에서 덤핑책과 같이 끼여서 팔리고 있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던 말이요. 나 화가 나서 그 길로 이리로 왔소”하더니, 다시 그는 정회장을 향하여 “출협이 무엇하는

데요. 이런 일 하나 막지 못하면서. 보시오! 저 동대문 덤핑시장이 존속하는 한 내가 다시 이 땅에서 책을 쓸 줄 아시오.” 그는 이렇게 絶筆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때 우리는 미안하고 또 뻔뻔한 대책도 없고해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

현존이건 작고이건 학자나 작가의 책들을 길바닥에 퍼놓고 당초 정가의 20~30%의 할값으로 팔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창조의 시각에서 볼때 중대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올바르지 못하게 일이 꼬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저작권은 한마디로 창작자 보호와 창작촉진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을 말한다. 이 두 권리가 덤핑책들 때문에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저작물이 본인이나 저작권자도 모르게 덤핑물화하여 팔려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해방 전후부터 이미 몇세대에 걸쳐 행해지지만 이에 대한 시비곡절을 가려보려는 노력이 미약했다.

오늘도 전국의 중소도시 버스정류장 근방의 공터나 길가에서 책을 퍼놓고 판다. 하지만 이런 덤핑 책들의 범람이 창작활동을 말살시키는 역기능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왔다.

과거 일제 식민지시대에 日書는 소위 本町(지금 충무로)에 자리한 일한서방·群書堂 등 당당한 양옥에 진열하여 팔면서, 韓書는 시골의 5일장이나 야시장 길바닥에서 팔았다. 해방직후에는 日書가 日人村에서 무더기로 길로 나왔다. 6.25 동안 때는 피난한 집 서재에서 책이 길바닥으로 나왔다.

책이 길바닥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비인간적이다. 또 비극의 부산물이다. 책은 그래서 길바닥에서 팔아서도 안되고 사서도 안된다.

그레삼 법칙의 현상적 독소는 너무나 확실하게 전체 창작활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8월 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 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6호 (8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 에이지 새 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문제1

우리나라 문학사상 최초의 종합순수문예동인지는 무엇인가? 이 문예지는 1919년 2월1일자로 창간, 1921년 5월30일 통권 9호로 중단했다.

1. 「創造」
2. 「文藝」
3. 「白潮」

### 문제2

「東文選」은 조선조 성종의 명을 받아 徐居正이 우리나라 詩文을 모아 펴낸 책으로, 모두 154권 45책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에는 어느 시대부터의 詩文들을 수록했다.

1. 신라
2. 고려
3. 조선조 태조

### 문제3

해방전후 카프계열의 시인이었던 尹崑崗(1909~1949)은 「대지」「만가」「살어리」 등 모두 6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1939년 7월에 발표한 세번째 시집은 독특한 내용으로 유명하다. 이 시집의 제목은 무엇인가?

1. 식물시집
2. 동물시집
3. 곤충시집

### 문제4

세계신기록만을 수록한 사전이 바로 「기네스북」이다. 이 책은 1955년 8월 세상에 첫선을 보인 이래 오늘날까지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네스북」은 어느 나라에서 창간되었나?

1. 미국 뉴욕
2. 영국 런던
3. 캐나다 토론토

출제 · 홍윤기

### 제42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2호 (6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53통, 이중 정답은 136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1. ③ 안서 김억

국내 최초의 번역시집으로 꼽히는 「오뇌의 무도」 번역자는 안서 김억(1893~?)이다. 김억은 「창조」「폐허」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투르게네프의 상징주의 시를 번역 소개하여 新詩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그의 번역시집인 「오뇌의 무도」(1921)에는 베를렌의 「가을의 노래」를 비롯해 프랑스 상징파 계열의

시 77편이 수록되어 있다.

### 2. ③ 「장미촌」

국내 최초의 시동인지는 1921년 5월24일 창간된 「장미촌」이다. 「장미촌」은 「폐허」와 「백조」의 교량적 역할을 했으나, 창간을 주재했던 시인 황석우의 도일과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창간호로 끝났다.

### 3. ① 부처의 말씀

조선 선조 2년(1569)에 설은에 의해 교정 간행된 「眞言集」은 「진언」 즉 「부처의 말씀」을 범어·한문 및 한글로 對誦한 책이다.

### 4. ②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는 현대인의 이중인격을 풍자한 괴기소설이다.

### 당첨자

김상희(서울 도봉구 미아3동 307-19 20/1)

정현수(서울 관악구 신림7동 667-5)

라경준(충북 청주시 모충동 87-2)

이명희(강릉시 운정동 336 1/4)

양운용(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동광세화아파트 2동 201호)

# 출판저널

통권 제 44호/1989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亨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李義天 金敏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산사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宰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容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沈善 | 徐淵吳     |
| 成完慶 | 宋相庸 | 慎鐘廈 | 安秉永     |
| 安輝滂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璟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靚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映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鐘庫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까지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증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